2강.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가
- 화담 서경덕 -

김 교 빈 (호서대학교)

1. 화담 서경덕의 삶

송도삼절

한국 기 철학의 시작

호 : 화담(花潭) / 복재(復齋)

31세 현량과 1등 추천 - 벼슬 않음 - 일생 처사로 지냄

독학 : 율곡은 스스로 얻은 것이 크다고 평함

가치론적 접근 아닌 존재론적 접근

임종시 : 先生意思如何 死生之理 知之久矣 意思安矣

2. 기(氣) - 유기체적 세계관

기(氣) - 동양의 유기체적 사유를 잘 드러내는 개념 : 서양 Chi / Ki

유기체론 - 상관론적 관점, 관계론적 관점, 전체론적 관점, 상보적 관점

기계론 - 환원론, 인과율, 요소론, 결정론, 예측가능

3. 기란 무엇인가

1) 기는 어디든 없는 곳이 없다.

허공(虛空) - 공기(空氣), 대기(大氣)

공기보다 농도 진한 연기(煙氣), 액화 상태의 증기(蒸氣)

2) 기는 만물의 본질이며 모든 사물은 기로 이루어져 있다.

사람 : 혈기(血氣)

만물의 차별성과 동질성 - 기질(氣質), 동기(同氣)

3) 느낄 수 있는 대상

감기(感氣) - 한기(寒氣), 열기(熱氣), 냉기(冷氣), 온기(溫氣), 습기(濕氣), 생기(生氣), 살기(殺氣)

4)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

기가 막혀 죽겠다 - 기절(氣絶), 기운(氣運), 기세(氣勢)

기가 약하다. 기가 꺾였다. 기가 살았다.

5)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.
기합(氣合) - 군기(軍氣), 인기(人氣)
6) 사람이 살아가는 힘
말투 : 어기(語氣), 기진백진(氣盡脈盡)
곡기(穀氣), 존야기(存夜氣) -- 잘 먹고 잘 쉬면 활기(活氣), 기력(氣力)
7) 감정이나 지혜도 모두 기
기분(氣分), 오기(傲氣), 노기(怒氣), 심기(心氣)
기고만장(氣高萬丈)
총기(聰氣), 용기(勇氣), 사기(士氣)

4. 기 개념의 발생과 변천

* 주역은 음양의 끊임없는 운동 변화로 설명
* 『노자』
천지 만물을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
* 맹자의 浩然之氣
* 장자
도(道) -- 기(氣) -- 만물(萬物) -- 기(氣) - 도(道)의 순환
* 관자 「수지(水地)」편 - 초기 의학 사상의 원류

*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

* 천문학과 氣
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 (天圓地方) - 개천설(蓋天說)
혼천의(渾天儀)와 혼천설(渾天說) 등장
선야설(宣夜說)
하늘을 가득 채운 것이 기라는 생각

5. 서경덕의 기에 대한 생각

* 기는 시간적 제약 없는 존재 : 시작도 끝도 없음
처음부터 있는 것이며 없어지지 않음 : 오직 모였다 흩어졌다 할 뿐

*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취산(聚散) 원리 -- 기자이(機自爾)

* 변화 중시 : 복재 -- 복괘 -- 복기견천지지심설
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계기

부채 비유

謝金相國惠扇二首

問。扇揮則風生。風從何出。若道出於扇。扇裏何嘗有風在。若道不出於扇。畢竟風從何出。謂出於扇。旣道不得。謂不出於扇。且道不得。若道出於虛。却離那扇。且虛安得自生風。
愚以爲不消如此說。扇所以能鼓風。而非扇能生風也。當風息太虛靜泠 泠地。不見野馬塵埃之起。然扇纔揮風便鼓。
風者氣也。氣之撲塞兩間。如水彌漫谿谷。無有空闕。到那風靜澹然之頃。特未見其聚散之形爾。氣何嘗離空得。
老子所謂虛而不屈。動而愈出者此也。纔被他扇之揮動。驅軋將去。則氣便盪湧爲風。故詩曰。形軋氣來能鼓吹。

一尺淸飆寄草堂。據梧揮處味偏長。
誰知一本當頭貫。便見千枝自幹張。
形軋氣來能鼓吹。有藏虛底忽通涼。
不須拂洒塵埃撲。竹杖相將雲水鄉。

不擇茅齋與廟堂。淸風隨處解吹長。
德和濟物兼玄白。道大從人聽翕張。
顧我無能驅暑濕。賴渠還得引秋涼。
丈夫要濯群生熱。當把泠飆播帝鄉。

6. 기 철학의 시대적 의미와 역할

* 자연을 객관적으로 탐구
  - 변혁의 철학 (動的)
  - 토정의 통상론
  - 실학의 상업론

* 율곡의 철학에 큰 영향 - 기자이와 경장론